

전남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전국 3번째

지난해 5041만kg...광주는 최저 수준 미세먼지 주변 질소산화물·황산화물 전국 배출량은 전년보다 4만여t 줄어

환경부가 지난해 각 사업체의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전남이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가 적은 광주는 최저 수준이었다. 3일 환경부가 발표한 '2017년도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이 5041만984kg, 광주는 7만2755kg이 배출됐다. 조사는 굴뚝 자동측정기가 부착된 전국 63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측정된 대기오염물질

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 불화수소(HF), 암모니아(NH3), 일산화탄소(CO), 염화수소(HCl) 등 7종이다. 이들 물질은 대부분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범으로 꼽힌다. 전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1위 충남(8713만5311kg), 2위 강원(5540만9410kg)에 이어 3번째였다. 전남지역 대기오염물질 중 질소산화물(2715만7114kg·53.87%), 황산화물(2183만1475kg·43.30%)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광주는 질소산화물(5만6033kg·77.01%)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남의 업종별 배출량은 제철제강업(연간 2만11t), 석유화학제품업(1만4757t), 발전업(1만4163t), 기타(835t), 시멘트 제조업(656t) 순으로 높았다. 지난 2016년에 비해 전남지역 사업장은 56개에서 58개로 2개 늘었으며, 연간 배출량은 1348t(2016년 4만9063t)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광주지역 사업장 수는 동일했으며 배출량은 40t(2016년 113t) 줄었다.

전남은 강원, 경북, 제주, 부산, 세종, 서울과 함께 오염물질 배출이 증가한 지역으로 조사됐다. 국내 전체 연간 배출량은 36만1459t으로 파악됐으며, 전년에 비해 4만218t이 감소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 등에 따라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및 주요 다량배출사업장의 방지시설 개선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화력발전소 가동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상한제약 도입 등을 통해 화력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할 계획이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2020년부터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먼지·황산화물에만 부과되던 대기배출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지난 달 28일 갑작스레 내린 폭우로 광주 북구 장등동 옹벽이 앞 장등천 호안블럭이 붕괴됐다. 3일 오후 광주시청 감사실 직원들과 관계자들이 붕괴지역을 점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장맛비에 또 무너진 장등천 옹벽 전면 재보수

광주시가 3차례 보수공사에도 최근 장맛비로 또 다시 붕괴한 북구 장등동 옹벽에 장등천 호안블럭(옹벽)을 전면 재시공에 가까운 보수공사에 나서기로 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내린 장맛비로 장등천 옹벽이 높이 3m, 폭 2.5m 정도 무너져 내렸다. 장등교는 2016년 3월 완공 이후 하천과 도로가 마주한 지반이 내려앉고 갈라지는 등 문제가 계속돼 올해 초까지 모두 3번의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내린 장맛비로 공사를 마친 곳이 붕괴해 부실공사와 허술한 준공검사 등이 제기됐다. 특히 장등교 공사는 지난해 시 감사에서도 설계

도면과 다르게 시공이 이뤄지는 등 하자가 곳곳에서 발생해 보완 시공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광주시종합건설분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무너져 내린 옹벽 양옆으로 10m가량을 추가해 최대 폭 30여m에 걸쳐 보수공사를 하기로 했다. 건설분부는 설계사와 감리 등의 기술검토가 끝나면 도로 장등1교에 맞는 재시공법을 선택해 이달 중 보수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장등천 정비사업은 광주시 종합건설분부가 2013년 8월에 사업비 55억1700만원에 발주, H건설이 시공을 맡아 2년여 공사 끝에 2016년 3월 완공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교육부 이의 신청 기각...조선대 구조개혁 불가피

2단계 결과 따라 정원감축 등 위기 학교 적폐청산위 개혁 촉구 목소리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진입하지 못한 조선대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조선대학교 등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본부 대학역량진단센터 측이 최근 조선대에 '이의신청이 인용되지 않아 2단계 진단 대상으로 확정됐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사실상 조선대가 제기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평가결과(잠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은 것이다. 조선대가 이의신청한 내용에 대한 세부 검토 결과는 오는 6일께 추가로 공개된다. 2단계 진단 결과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 정원감축이나 재정지원 제한 등 조치를 받게 될 처지에 놓인다. 조선대는 애초 계획대로 2단계 평가에서 결과를 얻기 위해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강동완 총장

도 '총장직을 걸고 대학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선대 관계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비인용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결과를 단정하기 이르다"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2차 평가에서 개선된 결과를 받을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선대 적폐청산위원회 등 대학 안팎에서 강도높은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다. 조선대 적폐청산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자율개선대학 탈락으로 대학이 안게 될 유무형의 수천억의 엄청난 손해에 대해 조선대 대학자치운영 협의회 집행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지역사회 협력기여, 대학운영의 건전성 등 평가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총장과 부총장은 급여 전액을 반납하고, 교수들은 재직 연차별로 차등 임금 삭감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진단관리위원회 및 대학구조개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1단계 자율개선 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이 구제될 수도, 예비 자율개선대학도 이의신청, 부정·비리 제재여부 심사를 거쳐 자율개선대학으로 확정되거나 빠질 수도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여순평화인권재단 설립 촉구

광주·전남 시민단체 70주년 회견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여순평화인권재단'(가칭)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여순연구소 등은 3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족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정부는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철저하고 명확하게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과 국가적 보상을 추진해야 한다"며 "생명 존중과 인권의 보

편적 가치를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해 '여순평화인권재단(가칭)'도 설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방부의 반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여순사건 발발 당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 수를 2043명으로 확정된 보고서를 부정하는 반역사적이고 반시대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최현주 여순연구소장은 "여순사건을 학문적으로 재조명할 수 있는 학술세미나 개최와 학술지, 증언록 발간 등을 통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달빛동맹 한마음 행사

달빛소나기

2018. 7. 7 SAT - 7. 8 SUN

광주신양파크호텔

달빛소나기 광주지역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part1. 달빛소통 14:00~17:00 광주문화재단 투어 / ACC관람

part2. 달빛나눔 19:00~22:00 멘토특강 / 공감콘서트

part3. 달빛기쁨 09:00~15:00 빛고를 문화 투어

대 상 : 지역 문화예술인 및 문화에 관심 많은 열정적인 광주 청년(20~30대)

참가시간 : 2018. 7. 7(토) 18:00~22:00

모집인원 : 선착순 80명

참가비용 : 없음(식사/기념품 제공)

참가방법 : 이메일 접수 saup@kwangju.co.kr

문의 :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062)220-0541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3	달님	23:40
해질	19:51	달님	10:33

짙은구름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다.

광주	구름많음	23/31	보성	구름많음	21/30
목포	구름많음	23/28	순천	구름많음	24/33
여수	구름많음	24/31	영광	구름많음	22/29
나주	구름많음	23/30	진도	구름많음	21/28
완도	구름많음	23/29	전주	구름많음	23/31
구례	구름많음	22/32	군산	구름많음	23/28
강진	구름많음	22/30	남원	구름많음	22/31
해남	구름많음	22/29	흑산도	구름많음	21/27
장성	구름많음	21/30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1.0
남해서부	앞바다	북서~북	1.0~3.0	북서~북	1.0~2.0
	면바다(동)	서~북서	1.0~3.0	서~북서	0.5~1.5
면바다(서)	서~북서	1.5~3.0	서~북서	1.0~2.0	
	남서~서	1.5~2.5	남서~서	1.0~2.0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1:10	05:50
여수 <td>23:10</td> <td>17:59</td>	23:10	17:59
	06:39	00:24
	18:30	12:38

◇ 주간 날씨

5(목)	6(금)	7(토)	8(일)	9(월)	10(화)	11(수)
☁	☁	☁	☁	☁	☁	☁
22/29	23/28	22/29	23/29	23/29	22/30	23/30

◇ 생활지수

- 식중독
- 매우높음
- 자외선
- 좋음
- 미세먼지